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생'교육

고양몽실학교놀이숲

지난 2019년 12월에 개관한 고양몽실학교놀이숲(이하 고양몽실학교)은 '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의 꿈을 스스로 펼쳐나가는 곳이다. 고양교육지원청과 고양중학교 동문회, 지역주민, 청소년 등은 당시부터 구 고양중 건물활용에 대해 고민한 끝에 청소년주도의 '자치 배움터'를 조성하기로 했고, 그렇게 고양몽실학교놀이숲이 탄생했다.

정리. 편집부 자료제공. 고양교육지원청

낡은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다

현재 고양몽실학교가 있는 건물은 2014년까지 고양중학교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관련 기관들은 TF팀을 만들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논의했다. 그러다 2018년 의정부몽실학교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몽실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당시 TF팀은 고양몽실학교, 고양예지숲, 고양몽실학교예지숲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몽실학교놀이숲'이란 이름을 택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과 가르침의 느낌을 주는 '학교'가 아닌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꿈을 자유롭게 펼치는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개관과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이 덮치며 고양몽실학교 프로젝트의 시작은 점점 늦춰졌지만, 공간이 마련되는 사이 2019년 초 고양교육청 소회의실 등에서는 고양지역 청소년들의 학생주도 프로젝트 6개가 시작됐다. 당시 총 30명의 학생들은 댄스, 분장, 사진·영상, 요리 등 6개의 미니프로젝트를 진행했고, 2019년 하반기에는 총 100명의 학생들이 1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 규모만큼이나 학생들의 관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20년 프로젝트에도 무려 137명이 참가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하는 공간

고양몽실학교는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지향한다. 원래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몽실학생자치회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몽실다방, 지역주민의 수다공간으로, 때로는 휴식처로 활용되고 있는 책읽기방과 책이야기방,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공간인 뮤지컬방, 드럼으로 포스를 뿜어내는 음악방 등이 있고, 학생들만 사용 가능한 곳이 바로 청소년놀이숲이다.

특히, 건물 뒤편에 신축한 소극장은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의 형태와 우리 전통의 마당놀이를 합한 듯, 관객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앞으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어우러져 한편의 공연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상상이 실현되는 곳

고양몽실학교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용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몽실마을교사를 위촉하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고, 학생주도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해 몽실학생자치회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몽다방(자치회가 운영하는 몽실다방)'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정책마켓 등 다른 몽실학교와의 연합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드림그라운드, 드론 등의 진로 연계 프로그램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올해 학생주도 프로젝트에는 140여 명이 참여하여 총 26개 팀을 구성,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창작활동을 통한 세상 관찰, 놀이 만들기, 실내건축물 만들기, 디자인, 민화 그리기, 네일아트, 식물재배, 음악 및 영상 제작, 요리 봉사활동 등의 주제를 통해 학교 교육과는 또 다른 색다른 경험을 몸소 체험해나갈 계획이다.

고양몽실학교놀이숲

위치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73
운영시간 화~금 10:00~20:00, 토 10:00~16:00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후 일반인 대상 개방 예정
문의 02-381-4580